

〈번역논문〉

동부유라시아와 동아시아* -정치권과 문화권의 설정-

이 유 진 **

머리말

이 책에서는 종래 ‘동아시아 속의 일본’이라는 시점에 기초하여 제시되었던 외교관계를 중심으로 한 고대 倭國·日本の 歴史像을 ‘동부유라시아’라는 새로운 지역설정을 통해 재검토하겠다.

‘동아시아 속의 일본’이라는 시점은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에 의한 ‘冊封體制論’이나 ‘동아시아 세계론’¹⁾, 이시모다 쇼(石母田正)에 의한 ‘東夷의 小帝國論’이나 ‘국제적 계기론’²⁾에 기초하고 있으며 皇國史觀을 배경으로 한 戰前의 독선적인 역사상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 廣瀬憲雄(히로세 노리오), 『古代日本と東部ユ-ラシアの國際秩序』, 勉誠出版, 2018의 序章을 번역한 것임.

** 송실대학교 사학과 강사

1) 西嶋定生,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 -六~八世紀の東アジア」, 『西嶋定生東アジア史論集三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 岩波書店, 2002, 5~58쪽(初出 1962); 「序說 -東アジア世界の形成」,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1983, 397~414쪽(初出 1970).

2) 石母田正, 「日本古代における國際意識について -古代貴族の場合」, 『石母田正著作集四 古代國家論』, 岩波書店, 1989, 1~13쪽(初出 1962); 「天皇と「諸蕃」-大寶令制定の意義に關連して」, 同書, 15~34쪽(初出 1963).

특히 일본 고대국가의 특징인 율령제 도입(즉 ‘국가’의 성립)³⁾의 과정을 隋의 南北朝統一을 기점으로 한 역사와 관련하여 묘사한 것은 왜국·일본의 역사를 보다 넓은 지역 속에서 평가하려는 것으로 확실히 매력적인 역사상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⁴⁾.

그러나 ‘동아시아 속의 일본’이라는 시점에 기초한 역사상에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할 점은 왜국·일본 역사전개의 원동력을 필요 이상으로 동아시아에서 찾고 있다는 것과, 동아시아 역사와의 관련을 증시하면 할수록 실태보다 거대한 隋唐王朝像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선진지역(帝國)이 주변 세력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형태의 역사와 관련된다는 것을 제시한 마츠모토 신하치(松本新八郎)의 ‘世界帝國論’⁵⁾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이 ‘세계제국론’의 역사와 관련된 틀을 계승한⁶⁾ ‘동아시아 속의 일본’이라는 시점이 필연적으로 떠안게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국제적 계기론’을 제창한 이시모다 쇼 자신이 국제적 계기와 국내정치의 관계에 대해 “이 사건(唐太宗의 高句麗遠征)이 다이카노가이신(大化改新)의 전제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녔

3) 石母田正,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 1971. 다만 近年에는 石母田가 의거한 앵겔스이론의 문제점이 알려져서 문헌사학에서도 국가성립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廣瀬憲雄, 「五世紀をどう評價すべきか? -倭の五王段階の「國家」, 『歴史評論』 809, 2017, 28쪽 참조.

4) 다만 역사관련 기점을 隋의 남북조통일로 한 것에 관해서는 당시의 국제관계 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왜국에 있어서 推古期の 획기성에 끌려간 결과로 생각되므로 따를 수 없다.

5) 松本新八郎, 「原始・古代社會における基本的矛盾について」, 歴史學研究會編, 『世界史の基本法則 -歴史學研究會1949年度大會報告』, 岩波書店, 1949, 2~35쪽.

6) 이 점에 관해서는 廣瀬憲雄, 「古代東アジア地域對外關係の研究動向 -「冊封體制」論・「東アジア世界」論と「東夷の小帝國」論を中心に」, 『東アジアの國際秩序と古代日本』, 吉川弘文館, 2011(初出 2008), 6~7쪽 참조.

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가(蘇我)씨 專制에 있어서, 앞서 기술한 내적 모순(소가씨의 群卿·大夫層으로부터의 고립)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隋 이래 몇 차례나 이루어진 고구려정벌은 항상 한반도 3국과 왜국에 반작용을 했지만, 그 반작용의 형태와 특징을 결정하는 것은 각국의 내적 상황이다”⁷⁾라고 서술한 것이다. 이는 역사전개의 원동력으로서 국제적 계기에 더해 국내의 정치상황도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⁸⁾ 국제적 계기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동아시아 속의 일본’이라는 시점만으로는 단면적인 역사상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말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대 왜국·일본의 역사상을 새로운 시점에서 제시하는 시도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동부유라시아’(유라시아 동방, 동유라시아)라는 시점이다. 이 시점은 中國 內地 중심으로 묘사되어 온 종래의 역사상을 극복하기 위해 돌궐·위구르(回鶻)·거란(遼) 등의 유목왕조도 주목하여 중국 내지의 농경왕조와의 남북관계를 기축으로 역사를 묘사하는 것으로 2000년대 후반 이후 동양사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⁹⁾, 2010년대

7) 石母田正,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 1971, 57~58쪽.

8) 中野高行, 「終章 總括」, 『古代國家成立と國際的契機』, 同成社, 2017, 269~281쪽. 278쪽에서도 “「國際的契機」論에 있어서는 石母田·芝原拓自·田中彰이 모두 일본(왜국)국내에 있어서 여러 조건이 성숙한 단계에서「國際的契機」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國際的契機」만을 과도하게 다루어 국내 상황에 영향을 주어 변혁을 가져오는 등의 일방적인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9) 「東部유라시아」(유라시아東方·東유라시아)라는 시점을 사용한 논저는 이하와 같다. 上田信, 『海と帝國』, 講談社, 中國の歴史 9, 2005; 古松崇志(李濟滄譯), 「契丹·宋之間澶淵體制中的國境」, 『日本中國史研究年刊』, 2007年度, 2009(初出 2007); 菅沼愛語, 「七世紀後半の東部ユ-ラシア諸國の自立への動き -唐·吐蕃戰爭と新羅の朝鮮半島統一·突厥の復興·契丹の反亂·渤海の建國との關聯性」, 『七世紀後半から八世紀の東部ユ-ラシアの國際情勢とその推移 -唐·吐蕃·突厥の外交關係を中心に』, 溪水社, 2013(初出 2009); 妹尾達彦, 「北京の小さな橋 -街角のグローバ

에 들어서서는 일본사에서도 사용되고 있다¹⁰⁾. 또 이 시점에 기초한 개별 실증연구에 의해 많은 새로운 사실도 밝혀져¹¹⁾ 현재는 “몽골시대 이전의 ‘동부유라시아’는 지금에야 일본사 연구도 포함하여 학계에 뿌리내렸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¹²⁾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 ‘동부유라시아’라는 시점은 동양사에서 제시된 것이지만, 일본역사에서 국제적 계기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동아시아 속의 일본’에 기초한 역사상의 재검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동부유라시아’라는 시점은 ‘동아시아 속의 일본’이 의거하는 ‘책봉체제론’이나 ‘동아시아 세계론’을 재고하는 데 유효할 뿐 아니라 고대 왜국·일본

-
- ル・ヒストリ」, 『國立民族學博物館調査報告』 81, 2009; 森部豊, 「序論」, 『ソグド人の東方活動と東部ユーラシア世界の歴史的展開』, 關西大學出版部, 2010; 井黒忍, 「金初の外交史料に見るユーラシア東方の國際關係 -『大金弔伐録』の檢討を中心に」, 荒川慎太郎編, 『遼金西夏研究の現在』 3, 2010. 또 직접「東部유라시아(유라시아東方·東유라시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과 밀접하게 관계된 저서로서는 杉山正明, 『疾驅する草原の征服者』, 講談社, 中國の歴史 8, 2005; 森安孝夫, 『シルクロードと唐帝國』, 講談社, 興亡の世界史 5, 2007; 石見清裕, 『唐代の國際關係』, 山川出版社, 世界史リブレット97, 2009가 있다.
- 10) 일본사연구자로서「東部유라시아」를 사용한 논고에는 廣瀬憲雄, 「倭國・日本史と東部ユーラシア -六~十三世紀における政治的連關再考」, 『歴史學研究』 872, 2010; 山内晋次, 「九世紀東部ユーラシア世界の變貌 -日本遣唐使關係史料を中心に」, 古代學協會編, 『仁明朝史の研究 -承和轉換期とその周邊』, 思文閣出版, 2011; 皆川雅樹, 「日本古代の對外交交易と「東部ユーラシア」」, 『歴史學研究』 885, 2011; 鈴木靖民, 「東アジア世界史と東部ユーラシア世界史 -梁の國際關係・國際秩序・國際意識を中心に」, 『専修大學東アジア世界史研究センター-年報』 6, 2012 등이 존재한다.
- 11) 예를 들면 鈴木宏節, 「唐代漠南における突厥可汗國の復興と展開」, 『東洋史研究』 70-1, 2011; 齊藤茂雄, 「突厥第二可汗の内部對立 -古チベット語文書(P.t.1283)にみえる Bugchor(Bugchor)を手がかりに」, 『史學雜誌』 122-9, 2013; 古松崇志, 「契丹・宋間の國信使と儀禮」, 『東洋史研究』 73-2, 2014 등을 참조.
- 12) 岡本隆司, 「「東アジア」と「ユーラシア」-「近世」「近代」の研究史をめぐって」, 『歴史評論』 799, 2016-11, 38쪽.

을 포함한 새로운 광역의 지역사로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하 이 장에서는 먼저 ‘책봉체제론’의 문제점을 확인하면서 ‘동부유라시아’라는 지역의 틀을 제시하고, 이어서 ‘동아시아 세계론’에서 설정하고 있던 ‘동아시아’를 ‘동부유라시아’라는 지역의 틀 속에서 새롭게 위치 지워 보자 한다. 이 작업은 정치권과 문화권이라는 두 방향에서 새로운 시점을 탐색하고 나아가 이 책 전체를 통해 역사상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제1절 동부유라시아의 설정

이 절에서는 ‘동아시아 속의 일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론의 하나이자 중국왕조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국제정치를 주제로 한 니시지마 사다오의 ‘책봉체제론’의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동부유라시아’라는 지역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니시지마가 제시한 이론 가운데 문화권 문제를 언급한 ‘동아시아 세계론’이 특히 유명하지만, 종래 비판의 대부분은 정치권 문제를 다룬 ‘책봉체제론’에 집중되어 있고 또 이 책의 내용도 외교관계(정치권 문제)가 중심이므로 ‘동아시아 세계론’과 문화권 문제에 관한 검토는 다음 절로 미루고, 이 절에서는 ‘책봉체제론’에 대한 비판에 의거하면서 정치권 문제에 주목하여 새로운 역사상을 제시해 보겠다.

먼저 종래부터 지적되어 온 니시지마 사다오의 ‘책봉체제론’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자. 1962년에 발표된 ‘책봉체제론’은 주로 6~8세기 동아시아 國際政局의 추이를 중국왕조가 주변 세력들의 首長에게 王·公 등의 爵位를 주는(冊封) 것으로 성립된 책봉체제라는 국제질서의 전개로 설명한 것이지만¹³⁾, 현재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원형 그대로 의거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앞서 '책봉체제론'에 대한 지금까지의 여러 비판들을 정리한 것¹⁴⁾을 다시 보완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A. 돌궐·토번·위구르 등 중국왕조에 필적하는 북방·서방의 세력들과의 관계가 제외되어 있다(지역적인 문제).
- B. 중국왕조 세력이 비교적 강력했던 隋와 唐 전반기부터 導出되었기 때문에 제1차 남북조시대나 당 후반기 이후에 대한 평가가 충분하지 않다. 반면에 주변 세력들에게 큰 영향을 준 당 전성기의 특수성(特異性)이 올바르게 평가되어 있지 않다(시기적인 문제).
- C. 광역에서의 역사적 관련성을 선진지역(帝國)이 주변 세력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형태로 설명하기 때문에 주변 세력들을 주체적인 존재로 평가하기 어렵다(歷史象의 문제).

이들 문제점은 '책봉체제론'이 중국왕조와 주변 세력들의 君臣關係를 중심으로 구상되었던 것에 비해, 실제 외교관계에서는 5代兩宋/遼金 시대와 隋唐 시기의 쌍방에 있어서 군신관계가 관철되지 않았던 사례가 많이 존재하였다¹⁵⁾고 하는 이론과 실제의 차이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왕조와 주변 세력들의 군신관계가 관철되지 않은 사례에도 주목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들 문제점을 극복[對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나

13) 西嶋定生,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 『西嶋定生東アジア史論集三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 岩波書店, 2002.

14) 廣瀨憲雄, 「古代東アジア地域對外關係の研究動向」, 『東アジアの國際秩序と古代日本』, 吉川弘文館, 2011.

15) 廣瀨憲雄, 「古代東アジア地域對外關係の研究動向」; 「唐宋時期周邊勢力の外交儀禮について -「東夷の小帝國」倭國・日本の位置」, 『東アジアの國際秩序と古代日本』, 吉川弘文館, 2011 참조.

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의 a~c의 분석시각을 제시하여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를 구상해 보려고 한다.

- a. 중국의 북방·서방 세력들과의 외교관계도 포함시키기 위해 파미르고원 이동¹⁶⁾ 지역을 ‘동부유라시아’라고 명명하여 정치권 문제를 고찰하는 단위로 설정한다.
- b. 東晉·劉宋(제1차 남북조시대)에서부터 오대양송/요금시대(제2차 남북조시대)의 외교관계도 다루어 이전부터 주목해 온 수와 당 전반기의 위상을 재고하고 동시에 당 전성기가 지닌 역사적 의의를 재평가한다.
- c. 왜국·일본을 포함한 주변 세력들을 독자의 국제질서를 지닌 주체적 존재로 평가하여 동부유라시아를 복수의 (종류의) 국제질서가 병존하는 다원적 외교관계가 전개된 공간으로 본다.¹⁷⁾

이러한 분석시각은 ‘책봉체제론’과는 달리 중국왕조와 주변 세력들의 군신관계가 반드시 관철된 것은 아닌 것에 주목하여 동양사에서 먼저 사용한 ‘동부유라시아’(유라시아 동방, 동유라시아)라는 시점과 거의 동일한 지역과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들 분석시각은 앞선 동양사의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아 시간적·공간적인 대상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주변

16) 동부유라시아의 범위를 파미르고원 동쪽으로 한 이유는 불교는 파미르 서쪽에는 거의 전파되지 않고, 이슬람교가 동투르크스탄 전체로 퍼진 것은 15세기 이후인 것처럼, 파미르고원은 일종의 분수령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던 것에 더해 히말라야산맥 등 아시아대륙의 중심을 이루는 많은 산맥은 파미르고원을 기점으로 방사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파미르고원은 자연지리학적인 지역의 단락인 것에 의한다. 渡邊光編著, 『支那地理大系 自然環境篇』, 日本評論社, 1940, 209~217쪽 참조.

17) 廣瀨憲雄, 「倭國・日本史と東部ユ-ラシア」, 『歴史學研究』 872, 2010; 「唐宋時期周邊勢力の外交儀禮について」, 『東アジアの國際秩序と古代日本』, 吉川弘文館, 2011.

세력들의 주체성이 외면되기 쉽다는 ‘책봉체제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 세력의 하나인 일본에 초점을 둔 것으로 중심-주변 관계를 상대화한 광역의 정치권을 상정한 것이다.

동양사에서 ‘동부유라시아’(유라시아 동방, 동유라시아)라는 시점은 漠北(고비사막 북쪽)·漠南의 유목왕조와 중국 내지의 농경왕조라고 하는 남북관계를 축으로 역사전개를 묘사하는 것인데, 이 시점은 유목왕조의 위치를 크게 바꾸는 것에 성공한 한편으로, 농경왕조와 유목왕조 양자를 새로운 ‘중심’으로 위치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중심’에 포함되지 않는 주변 세력은 그대로 ‘책봉체제론’에 기초한 비주체적 위상이 유지·강화될 우려가 있다¹⁸⁾. 그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하는 동부유라시아의 국제관계는 종래의 ‘동부유라시아’(유라시아 동방, 동유라시아)라는 시점과는 달리, 일본을 포함한 주변 세력들을 독자의 국제질서를 가진 주체적 존재로 평가하여 중심-주변 관계의 과도한 강조를 회피하고자 한다.¹⁹⁾

제2절 동부유라시아와 동아시아

앞 절에서는 니시지마 사다오의 ‘책봉체제론’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여 동부유라시아라는 정치권의 틀을 설정하였지만, 이 절에서는 같은 니시지마가 제창한 ‘동아시아 세계론’과 문화권으로서의 ‘동아시아’라는 지역개념을 재검토하여 동부유라시아라는 정치권 속에 새롭게 위치 부여를 해볼 것이다.

18) 廣瀬憲雄, 「東アジア世界論の現状と展望」, 『歴史評論』 752, 2012, 10쪽 참조.

19) 廣瀬憲雄, 「唐宋時期周邊勢力の外交儀禮について」, 『東アジアの國際秩序と古代日本』, 吉川弘文館, 2011; 「東アジア世界論の現状と展望」, 『歴史評論』 752, 2012.

먼저 니시지마의 '동아시아 세계론'의 내용을 확인해 보자. '동아시아 세계론'에서는 중국 내지, 한반도, 일본열도, 베트남, 몽골고원과 티벳고원 사이에 낀 河西回廊 동부를 하나의 역사적 세계로 설정하여 그 내부에 공통되는 문화적 지표로서 한자·유교·율령제·불교(중국불교)라는 4가지를 지적하고 있다²⁰⁾. 그리고 이들 조건에 기초한 '동아시아 세계'는 문화권으로서 완결된 세계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자율적 발전성을 가진 역사적 세계로 위치시키고 있다.

이 '동아시아 세계론'에 관해 유의해야 하는 점이 2가지 있다. 첫째는 '동아시아 세계'의 공통지표가 되는 문화들이 중국왕조의 정치적 권력이나 권위를 매개로 전파·확대(擴延)되었기 때문에 당 멸망 이전에는 '책봉체제론'에 기초한 정치권 세계로서의 '동아시아 세계'가 문화권 세계로서의 '동아시아 세계'와 일치한다고 정의되었다는²¹⁾ 점이다. 둘째는 니시지마가 제창한 '동아시아 세계'는 전근대 지구상에 복수로 존재한 '완결된 자립성을 가진 역사적 세계'의 하나로 우에하라 센로쿠(上原專祿)에 의해 세계사 구상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는²²⁾ 점이다.

이 가운데 이 절에서 다루려는 것은 첫 번째이다. '동아시아 세계론'에서는 정치권과 문화권이 일치하는 범위를 '동아시아 세계'로 규정하고 이 양자가 일치하는 이유를 중국왕조의 권력과 권위에 의한 문화의 전파에서 찾고 있지만²³⁾, 정치권 문제를 중국왕조에 필적하는 북방이나 서방세력과 의 관계를 포함한 '동부유라시아'라는 틀 속에서 생각한다면 '동아시아 세계론'에서의 상정과는 달리 정치권과 문화권은 일치하지 않게 된다. 바꾸

20) 西嶋定生, 「序說」,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1983.

21) 西嶋定生, 「序說」,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1983, 410쪽.

22) 李成市, 『東アジア文化圏の形成』, 山川出版社, 『世界史リブレット』7, 2000, 36~41쪽.

23) 李成市, 「東アジア世界論と日本史」, 『岩波講座日本歴史』22, 岩波書店, 2016, 44~46쪽.

어 말하면 ‘동부유라시아’라는 틀에 기초하면, ‘동아시아 세계’는 ‘완결된 자립성을 가진 역사적 세계’가 아니라 문화권 문제만의 틀로 후퇴하게 되지만, 거꾸로 ‘동아시아 세계론’에서 다른 문화권 문제에 관해서는 ‘동부유라시아’의 입장에서 새로운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니시지마가 정의한 ‘동아시아 세계’의 지리적 범위이다. ‘동아시아 세계론’에서 ‘동아시아’란 앞서 서술한 것처럼 중국 내지, 한반도, 일본열도, 베트남, 하서회랑 동부를 가리키지만, 이 가운데 베트남과 하서회랑 동부는 ‘동아시아 세계’에 포함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베트남에 관해서는 1960년대의 현실적 과제를 배경으로 하여 ‘동아시아 세계’에 포함되었다고 한 李成市의 지적이 있지만,²⁴⁾ 사실 ‘동아시아 세계론’에서 ‘베트남’이란 북부 베트남이고²⁵⁾ 중부·남부 베트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간단히 이 지적을 따를 수는 없다. 또 하서회랑에 관해서는 그 동부만이 ‘동아시아 세계’에 포함되었지만, 하서회랑 동부의 서쪽 한계가 黑河·北大河 유역의 張掖(甘州)·酒泉(肅州)이고, 대량의 한문문헌이 발견된 敦煌(沙州)은 하서회랑 서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세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은 니시지마 자신이 ‘동아시아 세계’를 ‘漢字文化圈’이라고도 표현한²⁶⁾ 것으로 보면 언뜻 의문이 들기 때문에²⁷⁾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설정이나 이해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

24) 李成市, 『東アジア文化圏の形成』, 山川出版社, 世界史リブレット7, 2000, 38~39쪽; 『東アジア世界論と日本史』, 『岩波講座日本歴史』 22, 岩波書店, 2016, 58~62쪽.

25) 金子修一, 「古代東アジア研究の課題 - 西嶋定生・堀敏一兩氏の研究に寄せて」, 『専修大學東アジア世界史研究センター年報』 1, 2008, 38쪽.

26) 西嶋定生, 「東アジア世界と日本」, 『西嶋定生東アジア史論集三 東アジア世界と冊封體制』, 岩波書店, 2002(初出 1975~76); 李成市, 『東アジア文化圏の形成』, 山川出版社, 世界史リブレット7, 2000, 7~9쪽 참조.

27) 물론 돈황 막고굴에서 발견된 것은 한문문서만은 아니라는 것에 더해 토번 지배 시대의 공용어는 티벳어이기 때문이지만, 돈황이 한자문화권에 포함되는 것 자체는 인정해도 좋다.

한다.

그럼 '동부유라시아'라는 정치권의 틀에 기초한다면, 문화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하에서는 니시지마가 '동아시아 세계'의 범주로 설정한 중국 내지, 한반도, 일본열도, 베트남, 하서회랑 동부라는 일련의 지역을 자연환경과 인간의 주된 생업에 따른 구분에 기초하여 새롭게 '濶帶農耕 우세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라는 시점으로 위치 부여를 하고 싶다.

먼저 '동아시아'의 북쪽 한계는 중국 내지 가운데 華北이 된다. 중국 내지는 秦嶺山脈과 淮河를 잇는 선(진령-회하선, 연간 강수량 800mm 선)에 의해 벼농사 중심 지대인 江南(華中 및 華南)과 밭농사 중심 지대인 華北으로 구분되지만²⁸⁾, 화북 북부에서 만리장성 밖의 漠南에 걸쳐 농경지대와 유목지대가 병존하는 '農牧接壤 지대'(농업-유목 경계지대²⁹⁾)가 동북에서 서남 방향으로 폭넓은 띠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농목접양 지대에서 농경 우세 지역과 유목 우세 지역의 경계선(연간 강수량 400mm 선)이 대략 만리장성의 선과도 겹친다는 점이다. 결국 같은 농목접양 지대이기는 해도 만리장성 남쪽의 화북은 농경 우세 지역, 북쪽의 막남은 유목 우세 지역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의 서쪽 한계는 하서회랑 동부의 장액·주천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농경 우세 지역과 유목 우세 지역의 경계선에 주목하면 하서회랑 동부가 농경 우세 지역으로서 서북 방향으로 가늘

28) 또 자연지리학적인 시점에서도 진령 북쪽의 古世層은 거의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진령 남쪽에는 다수의 褶曲의 列로 나뉘어 있어 식생분포도 秦嶺-淮河線이 경계인 것을 지적할 수 있다. 藤田元春, 『大陸支那の現實』, 富山房, 1939, 28~33쪽 참조.

29) 농목접양지대에 관해서는 妹尾達彦, 「北京の小さな橋」, 『國立民族學博物館調查報告』 81, 2009, 113~134쪽; 森安孝夫, 『シルクロードと唐帝國』, 講談社, 興亡の世界史 5, 2007, 59~62쪽 참조.

고 길게 돌출되어 있다. 하서회랑 동부 자체의 연간 강수량은 100mm 이 하지만, 흑하나 대북하 등 祁連山脈을 水源으로 하는 하천이 다수 존재하여 그 유역에서는 관개시설을 정비하면 농경이 충분히 가능하다³⁰⁾. 실제로 위성사진으로 추정된 흑하 유역의 居延 오아시스의 경지면적은 漢~五涼 시대에 약 120km², 西夏·몽골 시대에 약 110km²였다고 한다.³¹⁾

‘동아시아’의 남쪽 한계는 온대의 남쪽 한계이기도 한 베트남 북부이다. 남북으로 긴 베트남은 북부와 중부·남부 사이의 기후대가 달라 M. C. Peel 등에 의해 개정한 켈펜의 기후구분³²⁾에 따르면, 북부 베트남은 濶暖夏雨 기후(Cwa)지만 중부는 열대몬순 기후(Am), 남부는 열대사바나 기후(Aw)로 나누어지듯이 북부는 온대인 반면 중부와 남부는 열대이다. 또 베트남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북부 왕조와 중부·남부 왕조가 병존하다가 19세기에 성립된 阮朝에 이르러 처음으로 현재의 베트남 전역을 지배하게 된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³³⁾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동쪽 한계는 한반도 및 혼슈(本州) 이남의 일본 열도이다. 이 가운데 한반도는 전역이 농경 우세 지역이지만 중부의 서해안과 남부는 벼농사 지대, 그 외는 밭농사 지대이다.³⁴⁾ 또 일본열도는 동북

30) 中尾正義編, 『オアシス地域の歴史と環境 -黒河が語るヒトと自然の2000年』, 勉誠出版, 2011.

31) 森谷一樹, 「前漢~北朝時代の黒河流域 -農業開發と人々の移動」, 中尾正義編, 『オアシス地域の歴史と環境 -黒河が語るヒトと自然の2000年』, 勉誠出版, 2011, 30~32쪽.

32) M.C. Peel, B.L. Finlayson, and T.A. McMahon, “Updated world map of the Köppen-Geiger climate classification”, *Hydrology and Earth System Sciences*, 11, 2007, pp. 1633~1644.

33) 베트남 역사에 관해서는 桃木至朗, 「唐宋變革とベトナム」·「ベトナム史」の確立, 『岩波講座東南アジア史2 東南アジア古代國家の成立と展開』, 岩波書店, 2001; 八尾隆生, 「山の民と平野の民の形成史 -一五世紀のベトナム」·「收縮と擴大の交互する時代 -一六~一八世紀のベトナム」, 『岩波講座東南アジア史3 東南アジア近世の成立』, 岩波書店, 2001 등을 참조.

북부의 넓은 범위에서 8~10세기의 水田 유적이거나 탄화곡물이 출토되어³⁵⁾ 에미시(蝦夷) 사회도 나라(奈良)에서 헤이안(平安) 초기에는 농경 우세 지역으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사쓰몬(擦文)문화 시대(7~12세기)의 홋카이도(北海道)는 잡곡재배가 행해졌으나 주된 생업은 어디까지나 수렵이나 어로였으므로³⁶⁾ 이를 농경 우세 지역에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중국 내지, 한반도, 혼슈 이남의 일본열도, 베트남 북부, 하서회랑 동부라는 일련의 지역은 '온대농경 우세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시점에 기초한다면 문화권 문제는 유사한 기후 곧 유사한 생업지역에 동일한 문화가 전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문화전파의 이유에 대해서도 정치권력 간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되는 사회에 유사점이 보이는 점이나 인간의 이주가 비교적 용이하게 행해졌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³⁷⁾. 특히 민의 생활 속에 정착한 문화 문제에 관해서는 이러한 자연지리학적 시점에서 고찰하는 편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닐까?³⁸⁾

이상의 점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논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미 호리 도시카즈(堀敏一)의 지적이 있으므로 아래에 소개해 두겠다(밑줄은 필자).

여기서 '동아시아 세계'의 범위를 문제 삼고 싶다. 일본사 등의 연구자들은

34) 戦前の 실태이지만 印貞植, 『朝鮮の農業地帯』, 生活社, 1940, 39~42쪽에 언급되어 있다.

35) 熊谷公男, 「古代蝦夷(エミシ)의 實像に迫る」, 『上代文學』 117, 2016, 16쪽.

36) 蓑島榮紀, 「渡島蝦夷의 社會段階と組織化」, 『古代國家と北方社會』, 吉川弘文館, 2001, 199~201쪽 참조.

37) 물론 외국에 있어서 渡來人이나 불교전래문제처럼 정치권력간의 관계를 전제로 해야만 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38) 예를 들면 西嶋定生, 「日本の中の中國文化 -生家の想い出から」, 『西嶋定生東アジア史論集四 東アジア世界と日本』, 岩波書店, 2002에 언급되어 있는 '디딜방아'나 '맷돌' 등이다.

일본·한국·중국, 때로 발해 등을 포함하는 것을 동아시아사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책봉체제론도 그렇다. 거기에는 한자문화·유교·율령제·불교라는 네 가지가 공통요소로서 거론된다. …… 아무튼 이것들은 농업지대가 공유하는 문화라고 해도 좋다. 만리장성 북쪽의 유목민은 생활원리도 문화성격도 사회구조도 다르다. 그래서 이들은 내륙아시아 세계라는 통일된 별개의 세계라고 하는 생각이 틀리지 않다. 하지만 내륙아시아 세계는 주변의 문명세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 따라서 동아시아 세계의 역사도 북방유목민과의 관계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³⁹⁾

이 호리의 지적은 종래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문화권 문제를 인간의 생업이라는 시점에서 이해하는 점은 나의 의견과 같다. ‘동부유라시아’라는 정치권의 틀 안에서 문화권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제3절 동부유라시아와 세계사 구상

제1절과 제2절에서는 ‘동부유라시아’라는 정치권의 틀과 ‘온대농경 우세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라는 시점을 제시하였다. 이제 이 절에서는 이들 새로운 견해에 기초하여 세계사의 구상에 관한 전망을 말해 보겠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니시지마의 ‘동아시아 세계’는 우에하라 센로쿠가 세계사 구상의 일환으로 제시하였던 ‘완결된 자립성을 가진 역사적 세계’이자 정치권과 문화권이 일치하는 틀로서 설정되었다.⁴⁰⁾ 그러나 정치권의

39) 堀敏一, 「古代東アジア世界の基本構造」, 『律令制と東アジア世界 -私の中國史學(二)』, 汲古書院, 1994(初出 1993), 161~162쪽.

40) 李成市, 「東アジア世界論と日本史」, 『岩波講座日本歴史』 22, 岩波書店, 2016,

틀로서는 ‘동부유라시아’를 채용하고, 문화권의 틀로서는 ‘온대농경 우세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상정한다면 정치권과 문화권은 일치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 제시해 온 견해[知見]을 바탕으로 역사상을 묘사하면 최종적으로는 우에하라와 다른 형태의 세계사를 구상해야만 한다. 물론 이것은 이 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지만,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역사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현단계에서의 전망을 말해 보겠다.

먼저 정치권과 문화권의 관계는 하나의 정치권 가운데 복수의 문화권이 포함되는 것을 가정해야만 한다. 이것은 중국 내지의 농경왕조와 막북·막남 등의 유목왕조의 관계에 주목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想定에서는 동아시아를 동부유라시아에 복수로 존재하는 문화권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또 복수의 문화권이 하나의 정치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기완결적인 역사적 세계를 가정하는 우에하라의 세계사 구상과는 달리 복수의 문화권 간의 상호관계도 시야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어서 문화권 자체의 문제로서는 하나의 지역이 복수의 문화권 요소를 가지는 것이나 환경조건·기술수준의 변화에 의해 다른 문화권으로 이행해 가는 것도 가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화북 북부에서 막남에 걸쳐 존재하는 농목접양 시대는 농경문화권과 유목문화권의 양쪽 요소를 가지고 있고, 홋카이도·중국의 동북평원·하서회랑 등 지역은 耐寒·耐乾 품종의 개발이나 관개시설의 정비에 따라 순차적으로 농경문화권으로 전환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⁴¹⁾

44~46쪽. 이점을 고려한다면「동부유라시아」건「유라시아 동방」이건 정치권과 문화권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上原와는 전제를 달리하는 논의이다)한 거기에「세계」라는 용어를 덧붙일 수는 없다. 이점에 관해서는 廣瀬憲雄, 「東アジア」と「世界」の變質, 歴史學研究會編, 『第四次現代歴史學の成果と課題二 世界史像の再構成』, 續文堂, 2017 참조.

41) 일찍이 梅棹忠夫가 제창한 ‘文明生態史觀’은 기후학을 배경으로 한다(梅棹忠夫編, 『文明の生態史觀はいま』, 中公叢書, 2001)는 점은 나의 견해와 공통되지만 이리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문화권으로는 농경문화권과 유목문화권 외에 시베리아에서 중국 동북평원에 이르는 삼림지대에 사할린·홋카이도 등을 더해 수렵, 채집 문화권을 제시하고 싶다. 이 지역의 기후는 冷涼하지만 강수량이 적당하여 곡물농경도 가능하지만 중심이 되는 생업은 수렵채집과 어로이다. 또 이 지역은 고구려·발해·여진·아이누 등과 관계가 깊고, 이들 정권이나 세력을 주체적인 존재로 어떻게 다루 것인가는 일본사(특히 북방사)의 시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형태로 세계사 구상의 전망을 하는 이유는 농목접양 지대라는 개념은 세계사적 시각 하에서는 유효성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농목접양 지대는 단순한 농경지대와 유목지대의 경계선이 아니라 남북으로 폭 넓게 농경지대와 유목지대가 병존하고 있는 곳이고, 정치적으로는 다음 시대 정치세력의 요람이 되는 지역이지만,⁴²⁾ 미야노 유타카(宮野裕)에 의하면 중세 러시아에서는 농경지역과 유목지역의 경계 부분에는 경계 '지대'가 존재하지 않았고, 초원지대의 유목세력은 삼림지대의 도시나 농지에 장기간 체재·주둔하지 않았다고 한다.⁴³⁾ 또 유목세력인 遼는 중국 동북의 삼림지대를 충분히 경략할 수 없어서 최종적으로 삼림지대에서 발흥한 完顔阿骨打에게 멸망당했지만,⁴⁴⁾ 金은 遼와 반대로 유목지역의 중심인

한 문화권의 복합 상황이나 시기에 의한 변화에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42) 森安孝夫, 『シルクロードと唐帝國』, 講談社, 興亡の世界史 5, 2007, 60~61쪽; 鈴木宏節, 「唐代漠南における突厥可汗國の復興と展開」, 『東洋史研究』 70-1, 2011 등을 참조.

43) 森部豊研究代表, 「「農業・牧畜境界地帯」から構築する新しいユーラシア史像の試み」, 『科学研究費補助金報告書』(挑戦的萌芽研究 2012年度~2014年度, 課題番號 24652137), 2015 참조. 또 서남아시아-북아프리카의 사막·오아시스유목민과 농경민과의 관계는 중앙아시아의 스텝유목민에 비해 상호침투적·보족적이라는 梅棹忠夫의 지적(『狩獵と遊牧の世界 -自然社會の進化-』, 講談社學術文庫 24, 1976)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몽골고원의 세력들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어서 뒤에 칭기즈칸의 대두를 허용하게 되었다.⁴⁵⁾ 이러한 사실들은 도야마 군지(外山軍治)가 지적한 대로 “삼림지대의 民이 초원지대로 세력을 펼치는 것이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초원지대의 民이 삼림지대로 진출하는 것도 또한 어려웠다⁴⁶⁾”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농경과 유목이라는 대립관계만으로 비농경문화권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⁴⁷⁾

맺음말

이 장에서는 ‘동아시아 속의 일본’이라는 시점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동부유라시아’라는 정치권의 틀과 ‘온대농경 우세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라는 시점을 제시하고, 아울러 세계사의 구상에 관한 전망을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은 이 책 전체를 통하는 역사상의 전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 장에서 제시한 형태만으로는 새로운 역사상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시이 마사토시(石井正敏)가 말한 것처럼 “아무리 뛰어난 着想이나 관중들을 감동시키는 결론이라고 해도 논증이라는 절차 없이 도출된 것은 적어도 학술논문으로서는 단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기”⁴⁸⁾

44) 外山軍治, 「通論 - 金朝政治の推移」, 『金朝史研究』, 同朋舎, 1964, 2~3쪽.

45) 高松崇志, 「十~十二世紀における契丹の興亡とユーラシア東方の國際情勢」(荒川 慎太郎他編, 『契丹「遼」と十~十二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 勉誠出版, 『アジア遊學』 160, 2013, 8~20쪽), 18~19쪽.

46) 外山軍治, 「通論」, 『金朝史研究』, 同朋舎, 1964, 2쪽.

47) 이점에 관해서 중앙유라시아라는 개념은 본래는 동북아시아도 포함한다는 古畑 徹, 「日本の渤海史研究について」, 『日本學』 28, 2009의 지적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의 이하 부분에서는 이 책이 대상으로 한 동부유라시아의 국제관계를 포함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논점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역사상을 지탱할 실증 부분을 정비해 나가겠다.

또 이 책에서는 本編 전체를 시대별로 제1부에서 제4부로 나누었지만, 시대순으로 분석해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왕조의 세력이 비교적 약체였고 국제관계도 수와 당 전반기와는 크게 달랐던 오대양송/요금 시대만은 제1부에서 다루겠다. 그 제1부 제1장에서는 종래에 대등관계의 외교문서로 여겨졌던 ‘致書文書’를 재검토하여 오대십국의 상호관계를 재고하고, 제2장에서는 兩宋 시기의 동부유라시아에서 사용된 非 均신관계의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당시 동부유라시아의 외교관계를 분석하겠다.

다음으로, 남북조에서 수대까지의 외교관계를 다룬 제2부에서는 제1장에서 남북조와 柔然의 외교문서와 외교의례를 검토하여 5·6세기 동부유라시아 외교관계의 특징을 밝히겠다. 제2장에서는 倭王 武의 劉宋遣使에 주목하여 倭5王의 대중국외교와 국내통치의 관계를 재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日出處天子’ 외교문서의 典故가 된 『大智度論』을 상세히 검토하여 당시 외교문서 및 왜국과 수의 관계를 재고해 본다.

이어서 당 전성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7세기 중반에서 8세기 전반의 외교관계를 다루는 제3부에서는 제1장에서 『日本書紀』 皇極紀의 백제관계 기사를 주제로 7세기 중반의 한반도 정세를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7세기 후반 왜국의 외교의례를 정리하면서 울령제하 외교의례의 성립과정과 탐라 외교관계의 변천을 밝힌다. 제3장에서는 백촌강전투 이후 왜국·일본과 신라의 외교관계를 분석하여 7세기 신라의 講政 배경과 羅日關係 악화의 회기를 재검토한다.

48) 石井正敏, 「天平勝寶四年の新羅王子金泰廉來日の事情をめぐって」,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1, 56쪽.

마지막으로 8·9세기 일본의 외교관계와 군신질서를 다루는 제4부와 終章에서는 제1장에서 발해의 외교문서가 보여주는 명분관계를, 六國史와 『類聚國史』의 寫本 조사를 토대로 재검토하고, 제2장에서는 9세기 이후 일본의 '表'·'狀'·'批答'에 주목하여 일본 국내에서의 군신질서의 변화를 밝힌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8세기 일본과 발해가 상호 제시한 '擬制 친족관계'를 고찰하여 동부유라시아에서 차지한 일본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

